

수출규제 관련 중국동향(12.3~5)

1. 한·일 국장급 회의 관련

□ [언론 동향]

- 중국신문망(中国新闻网)은 한·일 양국이 12월 16일 일본 도쿄에서 국장급 수출관리 정책대화를 개최하기로 결정했다고 인용 보도¹⁾
 - o 일본 정부는 한국에 수출관리 인원 확충과 법령 정비 등 기존 요구 항목을 확인할 것이며, 한국 정부는 수출제한 조치 철회를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고 인용 보도(일본 NHK)
 - o 일본 정부 관계자는 한국 측이 일본 정부의 요구에 따라 관리 체제를 개선한다면 수출제한 조치 철회의 가능성도 있다고 언급
- 중국청년보(中国青年报)는 한·일 정부가 12월 셋째 주 국장급 회담을 열기로 결정했으나 양국의 마찰은 단기간 내 해소되기는 어려워 보인다고 보도²⁾
 - o 한국 정부는 2020년 대선을 앞두고 경제 회복에 대한 내부 문제와 미국의 압박을 느끼고 있으며, 한·일 분쟁의 장기화와 경제 문제가 안보 영역으로 확대되는 것을 막고자 조건부 연장을 결정한 것이라고 분석
 - o 하지만 지소미아 종료 조건부 연장 결정 발표 당일, 한국 국민들은 시위에 나섰으며, 일본이 약속한 시간보다 1시간 먼저 발표하는 등 마찰이 있었음을 전하며 양국의 분쟁이 아직 해소되지 않았다고 보도
- 중국경제망(中国经济网)은 한·일 간 국장급 수출관리 정책대화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된다면, 일본이 한국에 가했던 수출 제한 조치를 부분적으로 해결될 것으로 보인다고 인용 보도³⁾

1) 「定了! 时隔三年半, 日韩将于16日重启局长级对话」, 『中国新闻网』(2019. 12. 05)

2) 「对话虽开启, 韩日争端仍难解」, 『中国青年报』(2019. 12. 04)

3) 「韩日首脑会谈或12月举行 能否解除部分出口限制措施引关注」, 『中国经济网』(2019. 12. 04)

- 일본 정부 관계자는 한국이 화이트리스트에 다시 포함되는 데에는 비교적 오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이나, 한국에 실시했던 수출 제한 조치는 부분적으로라도 연내 철회될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
- 그러나 한국 정부 관계자는 아직 일본으로부터 관련 내용을 들은 바가 없으며, 12월 말 개최 예정인 한일 정상회담에서는 분명히 개선된 성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언급
- 일본이 단시일 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 다시 포함할 가능성은 적으나 정상회담을 계기로 일본이 수출제한 조치를 철회할 가능성은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
- 팽배신문(澎湃新闻)은 일본과 한국이 정상회담을 개최할 것이라며 일정 및 구체적 내용 등을 조율하는 중이라고 인용 보도⁴⁾
- 일본 아베 총리는 ‘한·중·일 3국 정상회담’ 출석을 정식으로 공표하며, 동기간 중 한국 문재인 대통령과 회담을 진행하기 위해 구체적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고 언급
- 또한 올해는 한·중·일 협력 20주년이라며 향후 북한 문제를 우선으로 삼국이 공통으로 직면하는 지역 형세 및 국제 사회 문제 등에 대해 솔직하게 의견을 교환하길 바란다고 덧붙임.

2. 기타

□ [언론 동향]

- 쾌과기(快科技)는 한 일본 기업이 한·일 양국의 분쟁 장기화를 감안해 한국 내 공장 설립을 고려하고 있다고 보도⁵⁾
- 일본 정부가 전 세계 플래시 메모리 생산의 50%, 램 생산의 75%를 점유

4) 「时隔一年三个月，日韩领导人将于本月举行正式会谈」, 『澎湃新闻』(2019. 12. 03)

5) 「传日本光刻胶大厂JSR将在韩国建立ArF产线」, 『快科技』(2019. 12. 03)

하고 있는 한국 기업에 제재를 가하자, 이들 기업을 대상으로 수출하던 일본 기업들 또한 큰 피해를 입게 됨.

- o 이에 일본 기업 JSR은 양국 관계가 해결되지 못할 것을 우려하여 한국에 공장 설립을 고려하고 있다고 보도

* JSR은 업계 내 가장 큰 업체로 일본 전체 포토레지스트 생산의 24%를 점유

- o JSR 측은 공장 설립 관련 아직 확정된 것은 없고, 계획 단계에서 삼성 측과 논의했을 뿐이라며 최종적으로 일본 정부의 승인을 기다려야 한다고 발표